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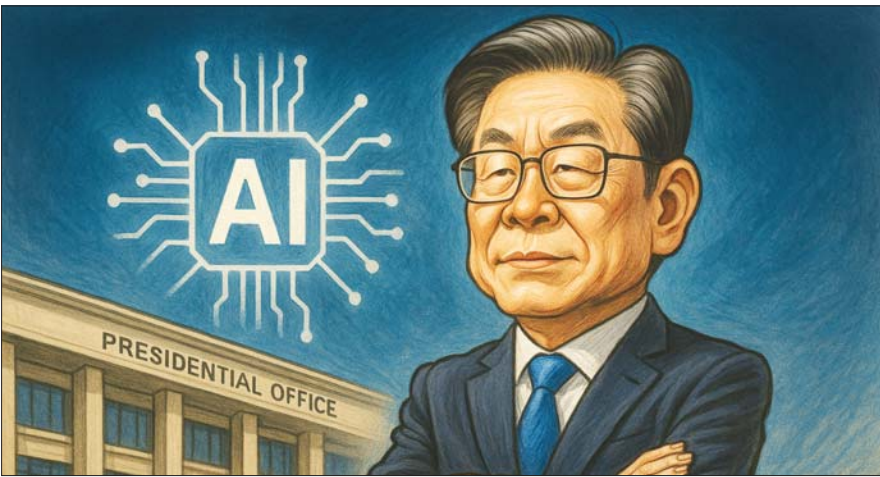
이재명 대통령, 'AI 국가전략' 국정 핵심 아젠다로 격상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수석실' 신설
최고국가인공지능책임자 임명 추진
각 부처와의 연계 실행력 성패 좌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대통령실에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며,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정권의 핵심 국정 아젠다로 끌어올렸다. 국가 AI 전략을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집권 초기부터 명확하게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로 풀이된다.

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은 "AI 산업과 첨단 기술,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전략적 미래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AI 미래기획수석' 직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실은 단순한 자문 기능을 넘어서, 정책 조율과 실행을 포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AI 관련 국가 전략을 총괄하고 외부 민간 생태계와의 접점을 조율하는 정책 허브 역할을 맡는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이재명 대통령과 AI 반도체 회로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AI 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며 AI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AI 주권' 확보와 '첨단 기술 패권 추격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당시 "AI는 더 이상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략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을 AI 세계 3대 강국(G3)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1호 약속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새 정부는 대통령실 내 AI 정책

수석 직제 신설과 함께, '최고국가인공지능책임자(CAIO)' 임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였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범정부 전략 컨트롤타워로 격상해, 실질적인 국가 정책 조정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새롭게 출범할 CAIO와 AI 수석실은 정부 각 부처에 흩어진 AI 관련 기능을 종합 조율하고, 민관 협업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이 부처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부처는 기획재정부·교육부에 이은 세 번째 부총리급 부처가 된다.

또한 기존의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AI를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전략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앞서 대선 공약으로 이른바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말하고, 향후 5년간 민관이 공동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AI 인프라 확충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나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반도체 기술의 내재화 ▲국가대표 AI 기업 육성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모두의 AI 프

로젝트'를 통한 국민 AI 접근권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국민 누구나 챗GPT 등 생성형 AI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대표 공약으로, 기술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술 격차가 계층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성 강화'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전략과 선언적 구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권한 정립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는 "AI 수석직 신설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조치지만, 실질적인 정책 집행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관 협업, 인재 확보, 공공 데이터 개방 등 각 부처와의 연계 실행력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네이버벤처스, 실리콘밸리서 AI 전략 강화

네이버, 美 신설투자법인 출범
선택 영역서 네이버식 AI 생태계 구축
AI 스타트업 '트웰브랩스' 투자 확정

네이버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신설 투자법인 네이버 벤처스를 출범시키고, 글로벌 AI 전략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5일(현지시간)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한 이해진 의장(사진)은 AI를 "인터넷과 모바일에 이은 인류의 세 번째 거대한 기술적 전환"으로 규정하며, AI 시대에 정보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네이버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색 엔진의 주권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다양한 시선과 맥락을 수용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 비롯된다"며 "네이버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유일한 고유 검색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정보의 다양성을 지키는 플랫폼이



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AI 기술력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의 본질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오픈AI처럼 모든 영역에서 붙는 대신, 네이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집중과 선택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다윗의 전략"이라고 비유하며, 소수의 선택된 영역에서 네이버식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네이버 벤처스의 설립은 단순한 재무투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의 성격을 띤다. 최수연 대표는 "네이버 벤처스는 현지 스타트업과의 전략적 시너지를 추구하며,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기술·인재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과거보다 훨씬 큰 스케일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창업자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스타트업에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이날 행사에서 글로벌 비디오투자자문 대표인 트웰브랩스의 이재성 대표와 함께 패널 좌담회를 열고, AI의 기술적 진화와 서비스 확장성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 직후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해진 의장은 이사회 의장직 복귀 배경에 대해 "네이버는 챗GPT 이전부터 AI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으며, 내부적으로도 그 결과에 놀라고 있다"며 "AI를 직접 진두지휘하려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은 경영진이 앞장서야 할 시기이며, 나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지원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서현 기자

LG U+-크레버스, '교육AX' 시장 공략

〈인공지능 경험〉

‘AX 통합 패키지’ 순차적 도입

LG유플러스가 프리미엄 교육 브랜드 크레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상담 기술과 통신 인프라를 결합한 '교육AX(인공지능 경험)'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크레버스는 청담아학원, 에이프틸어학원, CMS영재교육센터 등 전국 약 300 직영 및 가맹 학원을 운영하며, 약 70만 명의 학부모 고객을 보유한 국내 대표 에듀테크 기업이다. LG유플러스는 AI 상담포털, 메시징, AICCCTV, 자동평가 등으로 구성된 'AX 통합 패키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AICC 및 엑사원(EX AONE) 기반 상담 요약 서비스와 ▲AI 비즈콜 ▲AICCCTV ▲메시징 ▲와이파이 ▲U+커넥트 등으로 구성된 'AX



권용현 LG유플러스 기업부부장(왼쪽)과 이동훈 크레버스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통합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크레버스 학원에 도입한다. 또한 AI 상담포털 서비스를 공동개발해 상담 품질을 높이고, 상담 시간과 강사와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학원 운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고자 한다.

/김서현 기자

AI 경쟁력 판가름할 '데이터 파운드리'

AI 학습 데이터 고갈… 정체기 전망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점차 고갈되면서 '데이터 파운드리'가 AI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8일 IT 업계에 따르면 현재의 데이터 소비 속도로 오는 2028년이면 인터넷에서 활용 가능한 텍스트 데이터가 대부분 소진돼 AI 발전이 정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AI 대전환 흐름 속에서 기존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모델은 GPT-3 이후 라

마 3, 팔콘-180B 등과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로 진화했고, 챗GPT·클로드 등 대화형 AI의 확산과 텍스트·이미지·음성을 통합 처리하는 멀티모달 AI 등장으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에 비해 고품질 데이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최근 발표한 'AI·ICT 브리프(2025-19호)' 보고서에서 AI 학습에 활용되는 기존 데이터의 중복성, 편향성, 노이즈 등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IITP는 데이터 기근으로 인해 데이터 전문 공급 체계인 '데이터 파운드리'가 AI 시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파운드리는 단순 데이터 저장소를 넘어 수집·정제·라벨링·관리·품질보증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데이터 처리 서비스다.

보고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파운드리 구축·활용이 AI 시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며 "온전한 데이터 파운드리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통합, 전처리·정제, 라벨링·주석, 저장·관리, 품질 관리·거버넌스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0

SKT, 유심교체 누적 659만건 완료

“오는 20일까지 교체 완료할 것”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해 진행 중인 유심(USIM) 교체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8일 0시 기준 누적 교체 인원은 약 659만명으로, 전체 예약 고객(약 952만명) 중 69%가 교체를 마쳤다. 잔여 예약 고객은 약 293만 명이다.

유심 교체는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화됐으며, 일일 교체 수는 평균 12만명 수준을 유지 중이다. 임봉호 MNO사업 부장은 "16일까지 안내 문자를 모두 발송하고, 20일까지 교체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소매점 인력 지원 확대,

본사 직원 투입, 국방부 협조를 통한 군장병 대상 '찾아가는 교체 서비스' 등 현장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9~10 일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약 1000명의 장병 유심이 교체될 예정이다.

이번 교체로 발생하는 비용은 1500억~1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유심 단가는 건당 7700원이며, 유통망 처리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다.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선 "고객 형평성과 협력사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방침을 정하겠다"고 김희섭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이 밝혔다. SK텔레콤은 보안 투자도 확대한다.

/김서현 기자